



글로벌전선교회 선교사들이 부산 세계로교회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월 5일~6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제 1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결연을 맺고 선교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자, 세계 각지에 있는 30여명의 선교사님들을 부산으로 초청했습니다. 글로벌전선교회의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와 이반석 선교사도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전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위로와 도전을 받고, 그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산 세계로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양산 새빛교회 단기팀이 글로벌전미션센터에서 일정을 무사히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1월 7일~10일, 양산 새빛교회 단기팀이 글로벌전미션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초등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골고루 구성된 단기팀은 태국 현지 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어주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등 현지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단기팀은 학교의 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기쁨과 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새빛교회는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단기팀의 학생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태국에서의 며칠을 보내고 단기팀 학생들의 입에서 위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일정 내내 수고하셨던 차선옥 목사님과 유명룡 장로님, 차지은 집사님,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글로벌전미션센터의 단기선교사로 힘썼던 류소연 자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현지인 사역자의 헌신으로 글로벌미션센터의 사역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파야오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국 교회에서 수년간 사역하던 앳 전도사가 글로벌미션센터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하더니 사역자로서 방라몽새빛교회를 돕고 싶다는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고아로 자란 앳 전도사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학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글로벌미션센터의 전체 인원이 참가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앳 전도사는 주일 예배 때에 찬양팀(기타) 멤버로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로 섬기며 방라몽새빛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모두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해 1월의 두 번째 토요일은 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갑니다. 지역의 상점들도 특별한 행사와 가격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방라몽새빛교회 주일학교에서도 태국 어린이 주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주변의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광고를 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이반석 선교사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며 어른들과 함께 합동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명진식 목사님께서 영어로 간증과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아이들과 운동장으로 나가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 걸려서 숨긴 보물들을 10분이 안 되어 다 찾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허탈함과 기특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보물찾기 시상식에서 선물을 받고 뽀짝이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글로벌미션센터의 사역자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치킨너겟과 감자튀김 등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고, 아이스크림 아저씨를 초청해서 간식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늘 하던 영어수업 대신 운동장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총과 물풍선을 주고 함께 뛰어 놀다 보니 어느새 더위는 잊고 시원한 웃음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과 축구를 하면서 태국 어린이 주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 행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찮게라도 복음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라몽새빛교회 주일학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동안 태국에 공휴일과 축제가 여러 차례 있으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지방에 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갔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방라몽새빛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인원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주일 차량운행으로 30여명의 아이들이 오던 돼지마을과 공장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절에 데리고 다니며 교회에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새로 전도 받은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지난주에도 40여명의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라몽새빛교회 성도들과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학사의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학사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초, 파타야 인근에 위치한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다니엘 학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6명의 소년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11명으로 늘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다니엘 학사의 아이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캐

생년월일: 2003년 4월 21일 (만 15세)

전입일: 2017년 10월 1일

장래희망: 선생님, 요리사

취미: 독서

성별: 여

소개내용: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에이즈에 걸린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매우 잘하며 지역학교 대회에서 일등도 했습니다. 캐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학사에서 생활하니 성적이 20등에서 10등으로 올라 스스로도 매우 뿌듯해 합니다. 성격이 밝고 리더십이 있어 학사의 큰언니 역할을 잘 합니다. 또한 학사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학사 선생님을 도와 동생들의 아침과 저녁밥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주일학교 사역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땡

생년월일: 2007년 1월 19일 (만 12세)

전입일: 2017년 10월 1일

장래희망: 선생님

취미: 그림 그리기

성별: 여

소개내용: 땡은 고아로 살다가 이웃집 할머니의 보살핌을 통해 자랐습니다. 땡의 성격은 매우 밝고 활동적입니다. 땡은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주일에는 새로 온 친구들을 잘 챙깁니다. 땡은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사에 들어오고 학교 성적이 부쩍 늘었다며 기뻐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땡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찬양리더로 봉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땡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맴

생년월일: 2007년 9월 23일 (만 11세)

전입일: 2018년 5월 16일

장래희망: 군인

취미: 축구

성별: 남

소개내용: 아버지는 마약을 하다 적발되어 감옥에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맴은 성격이 밝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달리기를 매우 잘하고 물에서 노는 것도 정말 즐거워합니다. 어릴적 부터 가정에서 방치되어 자라다 보니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사에서 지내면서 국어와 수학의 기초부터 잘 다져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맴은 장래에 군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글로비전미션센터에 학교와 건물을 짓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

생년월일: 2010년 7월 17일 (만 8세)

전입일: 2018년 5월 16일

장래희망: 의사

취미: 그림 그리기

성별: 여

소개내용: 아이는 맴의 동생입니다. 마음이 착해서 주위 아이들을 잘 챙겨줍니다. 주일에 만나는 두 여동생들도 잘 챙기고 언니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또한 성격이 밝고 잘 웃으며 애교가 참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이는 학사의 언니들을 좋아하며 잘 따릅니다. 지금은 공부를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꿈입니다.



띠이

생년월일: 2004년 1월 5일 (만 15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운전기사

취미: 축구

성별: 남

소개내용: 띠이는 2살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띠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어 띠이가 부모님을 못 본지는 오래 됐습니다. 띠이는 축구할 때 제일 행복한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띠이는 아직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고아원에서 지낼 때에 예배 때마다 싱어를 했을 정도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친구라고 고백하는 띠이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제일 슬프다고 합니다. 과거에 남의 물건을 종종 훔쳤던 자신의 습관을 반성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생년월일: 2006년 9월 8일 (만 12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아직없음

취미: 축구

성별: 남

소개내용: 한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9살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방콕 소재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느라 한을 돌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의 누나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한 살 많은 형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지금은 소년재활센터(Child Rehabilitation Center)에 있습니다. 한은 2년 전에는 ADHD약을 먹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한은 독서를 좋아하며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한은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고민중입니다.



플룩

생년월일: 2006년 10월 28일 (만 12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축구선수

취미: 축구

성별: 남

소개내용: 플룩의 어머니는 플룩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2살이었던 플룩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때문에 플룩은 엄마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형은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까지 어머니가 플룩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플룩은 엄마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룩은 축구를 잘하고 또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플룩은 장난기가 많은 활발한 아이로, 현재 ADHD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자신의 마음을 다 주는 아이입니다. 또한 의리가 있어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플룩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

생년월일: 2007년 4월 2일 (만 11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어부

취미: 낚시

성별: 남

소개내용: 능의 엄마는 캄보디아인, 아빠는 태국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피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능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마약 혐의로 태국에서 추방되어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고, 경찰은 능과 한 살 어린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가 2015년 5월 20일로, 능은 자신이 고아원에 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살 이후로 능은 엄마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능은 처음보는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리지만 알고 보면 든직하고 순진한 아이입니다. 능은 박자감각이 좋아서 드럼 연주를 잘합니다. 주일예배 찬양팀에 서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능은 낚시를 좋아해서 어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낚시를 해서 잡은 생선을 교회에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관

생년월일: 2008년 4월 19일 (만 10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목사

취미: 수영, 요리 **성별:** 남

소개내용: 관은 능과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입니다. 관의 어머니는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관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관은 4살 때, 5살이었던 형 능과 함께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간식과 수영, 게임을 좋아하는 관은 화를 내는 친구를 싫어하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관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고 베이스기타 연주방법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은 총명하고 영어를 좋아하며,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관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관은 “God is my life” 라고 얘기합니다. 관은 대표기도도 잘해서 주일학교 친구와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갠

생년월일: 2009년 11월 30일 (만 9세)

전입일: 2019년 2월 5일

장래희망: 군인

취미: 수영 **성별:** 남

소개내용: 갠은 어릴 때 아버지가 지인과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었고, 어머니는 만난 적이 없으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갠과 갠의 형, 누나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가 부족해서 갠은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방학 때에는 종종 누나가 찾아와 갠을 간차나 부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갠은 다소 예민한 아이로, 현재는 ADHD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갠은 노는 것과 자는 것을 좋아하고 수학과 시험을 싫어하는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학사 아이들의 일상



TUE & THU 최정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박순희 사모님은 아이들의 이발을 맡아 주십니다



맛있는 햄버거~ 최정철 목사님의 특별간식!



이곳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습니다

간추린 소식

1. 이반석 이기쁨 선교사가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아직은 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자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강북중앙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학사 아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선교비를 모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간식과 아이들의 여가생활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XNZquBDnaY>

PRAYER REQUEST

1 글로벌전국제학교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글로벌전국제학교 3층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와 수도 및 인테리어 등 남아있는 작업이 많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시기에 맞게 국제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글로벌전미션센터의 사역자들과 일꾼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태국의 건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데, 3~4월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달입니다. 하루하루 뜨거워져가고 있는 날씨 속에서 이제는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낮에도 뜨거운 햇빛 아래 콘크리트 작업을 하며 일하시는 이규식 선교사님과 인부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도록 손 모아주세요. 또한 이기쁨 선교사와 태아가 폭염을 잘 견디며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글로벌전국제유치원 개원이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기쁨 선교사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글로벌전국제유치원 개원 계획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파타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전국제유치원 한국어반을 먼저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전국제유치원 영어반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3월에 김지연 선교사가 글로벌전미션센터에 합류하여 한국어반의 원감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교구 정리와 서류작업, 교사와 원아모집 등 개원을 위해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전국제유치원의 개원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유치원이 강력한 기도와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4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단기 선교사들을 보내주소서

글로벌전국제유치원과 호산나 대안학교, 방라몽새빛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이로 함께 섬길 장·단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곳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글로벌전선교회 : 이규식(태국지부 이사장), 유철준(한국지부 이사장)
글로벌전국제유치원 : 최영미(원장), 김지연(한국어반 원감), 이기쁨(영어반 원감)
호산나대안학교&다니엘학사 : 최정철(교장)
방라몽새빛교회 : 이규식(담임목사), 순톤(현직목사), 이반석(주일학교)